

광주 수유시설 89곳... 전국 최하위 수준

모유·우유 먹고 기저귀 가는 외출 필수 편의시설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돼 ... 전남은 139곳에 설치

광주 도심 내 수유시설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시설은 모유나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장소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외출시 필수 편의시설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수유시설 3259곳을 대상으로 올해 1~7월 수유시설 현황과 비용 비치, 청결 및 환경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조사한 17개 시도별 수유시설 설치현황 살펴보면 ▲경기 655곳 ▲서울 613곳 ▲부산 317곳 ▲인천 201곳 ▲경북 165곳 ▲충남 162곳 ▲경남 147곳 ▲전남 139곳 ▲전북 127곳 ▲울산 119곳 ▲대구 118곳 ▲강원 99곳 ▲제주 96곳 ▲광주 89곳 등 총 3259곳으로, 시도 평균 191곳이다.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광주의 수유시설은 세종, 대전, 충북에 이어 4번째로 적었다.

설치 장소를 구분해보면 공공(다중)시설 1034곳(31.7%), 공공기관 782곳(24.0%), 공공청사 759곳(23.3%), 교통시설 500곳(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곳(2.6%), 민간기업 100곳(3.1%) 등이다.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중 3048곳(93.5%)는 외·내부인 모두 사용이 가능했지만 아파가 이용 가능한 시설은 2057곳(6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수유시설은 아파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 3259곳의 수유시설이 설치됐지만 10곳 중 8곳은 1일 방문객이 채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루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82.3%에 달하면서 수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현황을 살펴본 것"이라며 "향후에는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를 정례적으로 수유 및 육아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



광주시의 수유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광주의 한 수유시설 내부 모습.

기로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위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수유시설검색 시스템(www.sooyusil.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복구 보건소에서 치과진료 가능해진다

구강보건센터 공모 선정 국·시비 1억3500만원 확보

앞으로 광주 복구보건소에서 치과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복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년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복구 보건소가 최종 선정돼 국·시비 1억3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복구 보건소 3층에 들어서는 구강보건센터는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 진료·교육 공간과 장애인 접근동선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계획이다. 총 182.9㎡ 규모로 구강보건교육실, 구강진료실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장애인 구강건강 토털 케어, 주민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등 일반 주민은 물론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1차 구강진료, 교육 및 예방치과 등 분야별 맞춤형 보건사업과 치과진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구 보건소는 돌봄이웃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노후대비 견치교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등 '백세인생, 내 이로 살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방 중심 구강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이 지역 인구의 30.4%를 차지하고 있는 복구에서는 그동안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구강보건센터 유치를 시도했고, 구강보건사업 추진역량과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상록도서관 11월까지 캘리그래피·한문교실 등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광주 상록도서관이 오는 11월까지 2018년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상록도서관의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연령대 별 맞춤형 프로그램 10개 과정을 마련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까르르 신나는 책 놀이터', '어린이 고전놀이터', '어린이 명화 갤러리' 등 연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반인은 '감성 손글씨 캘리그래피', '고전으로 보는 교양 한문교실', '마음에 시 한 편 in 서구', '책으로 만나는 감성바스질', '수필도 메모처럼',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상록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한잔 어떠?'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도 연다. 또 잃어버린 회원증 바로 발급 찬스, 대출권수 확대 행사, 연체자 구제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seogu.wangju.kr/library), 상록도서관(062-350-45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는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사)광주시 도시농업포럼에 위탁 재배해 온 친환경도시텃밭 도심양봉꿀 전달식을 했다.

풍암동 공영텃밭 양봉장 생산 꿀 서구, 600여 저소득 가정에 전달

광주 서구는 "풍암동 공영텃밭 양봉장에서 생산한 꿀을 600여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공영 도시 텃밭을 운영한 서구는 올해 5월에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고자 꿀 위탁 재배 시작했

다.

추석을 앞두고 풍암동 공영텃밭과 아카시아꽃 군락지에서 수확한 벌꿀을 지역 소외계층에 고루 전달했다.

서구 관계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공영텃밭서 직접 수확한 꿀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꽃보다 당신, 아름다운 청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직무 스트레스·고통 예방 광주 남구, 총 45명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남구는 9월 한달간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 예방을 위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꽃보다 당신, 아름다운 청춘'을 운영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꽃보다 당신, 아름다운 청춘' 프로그램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남구노인복지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지역 내에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현황조사 및 방문 문안, 생활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현재 남구노인복지관에 소속돼 남구 지역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생활 관리사는 총 45명에 이른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광범위한 활동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인력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생활 관리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가 무려 30여명으로, 업무량에 비해 이들을 위한 근로 환경 및

처우, 사회적 인지도 등 직무에 관한 불만족과 스트레스 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9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희망자에 한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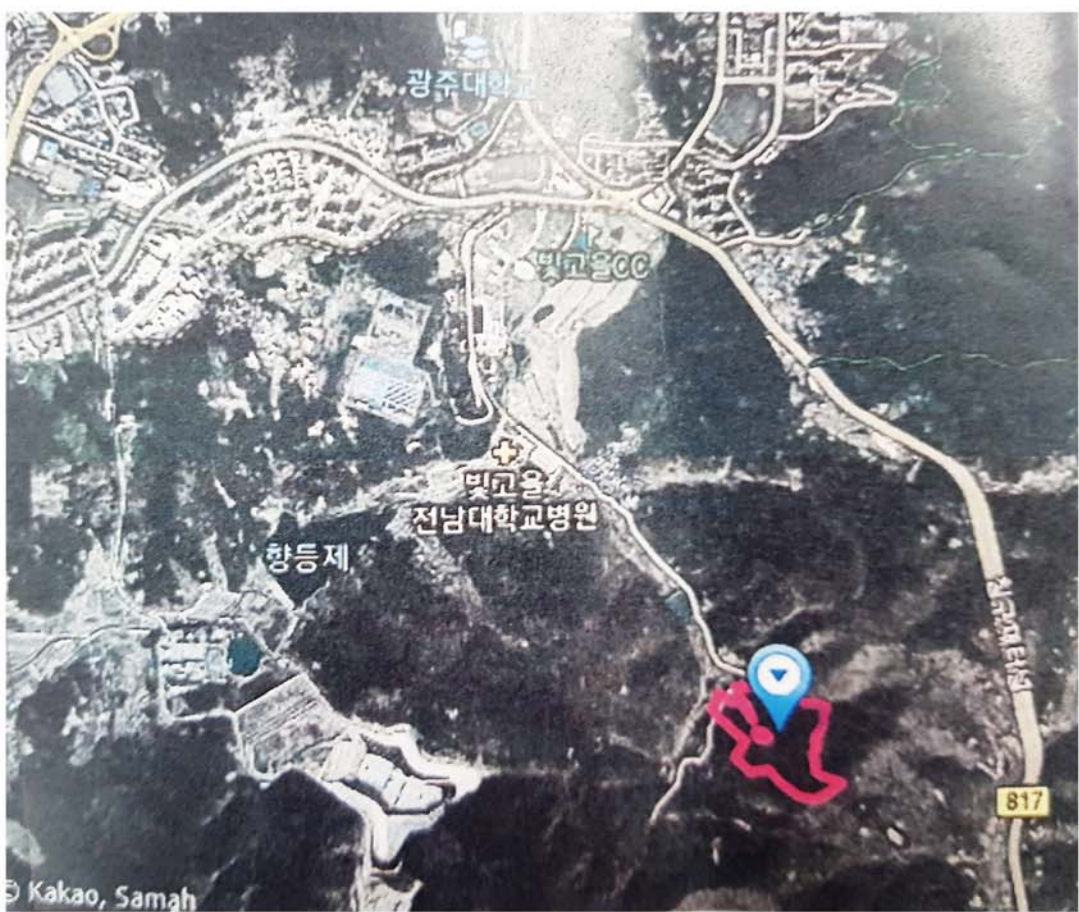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현재의 내 모습을 알아보는 자화상 그리기와 근황토크, 드라이플라워 화병 꾸미기, 정찬 롤링페이퍼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또 10월 첫째 주에는 나주 산림자연연구소를 방문해 숲 체험 및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